

새 영화

모범시민

불합리한 법을 향한
치밀한 액션 복수극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정부와 법
질서에 실망한 한 남자가 직접 복
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물.

클라이드는 유명한 범명가. 어느
날 집에 괴한이 침입, 아내와 딸을
살해한다.

범인은 곧 잡히지만 검사 닉은 현
실과 타협해 불법적인 거래로 살인



범이 풀려나는 데 일조한다. 부조리
한 사법질서에 분노한 클라이드는
살인범과 정부를 향해 치밀한 복수
를 시작한다.

10년 뒤, 클라이드 가족 살인사건
의 범인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그 살
인범으로 클라이드가 지목된다. 클
라이드는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만 이후 그의 경고대로 연일 처참한
살인사건과 대형 폭파 사건으로 혼
란에 빠진다.

영화 '300'의 제라드 버틀러가 오
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클
라이드 역을 맡았으며 '레이', '슬로
이스트'의 연기파 배우 제이미 폭스
가 검사 닉으로 출연한다.

감독 신이 많은 작품의 리얼리티
를 위해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폐쇄된 악명 높은 흑스버그 감옥에
서 촬영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강한 남자들이 몰려온다



■ '용서는 없다' 설경구-류승범

부검의와 살인자의 치밀한 '두뇌싸움'

남성 영화가 몰려온다.

내년 개봉 예정인 한국영화 중 눈에 띄는 흐름은 바로 남자들의 대결을 그린 영화가 많다는 점이다.

1월 관객들을 만나는 '용서는 없다'에는 연기파 배우 설경구와 류승범이 출연한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체에 남겨진 단서를 추적해야 하는 부검의와 연쇄 살인을 예고하는 살인마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그린 스릴러물로 김형준 감독의 데뷔작이다.

송강호와 강동원은 '의형제'를 통해 한판 연기 대결을 벌린다. 신분을 숨긴 채 나누는 위험한 의리와 위태로운 우정에 초점을 맞춘 이번 영화에서 송강호는 현실적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전직 국정원 요원 한규를, 강동원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그 내면에 따뜻한 감성을 지닌 남파 공작원 지원을 연기한다.

송강호는 또 '시월애'의 이현승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밤안개'에서는 김승우와 호흡을 맞춘다. 거친 카리스마를 지닌 조직 보스와 냉정한 킬러 두 남자가 첫 사랑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2008년 흥행과 평단에서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추격자'에 함께 출연한 김윤석과 하정우는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 '의형제' 송강호-강동원

위험한 의리와 위태로운 우정에 초점

'추격자'의 나흉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황해'는 청부 살인을 위해 국내에 잡입한 조선족과 그를 살해하기 위해 투입된 또 다른 살인 청부업자의 죽고 죽기는 과정을 그린 액션 스릴러물로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소요된다.

스타급 남자 배우들이 대거 포진한 영화들도 눈길을 끈다.

내년 6월 개봉 예정인 '포화속으로'는 한국 전쟁 중 낙동강 전투 막바지에 71명의 학도병과 인민군이 별인 12시간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

'아이리스'로 드라마에서도 대박을 터트린 테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이번 영화에서는 권상우와 '빅뱅'의 탑이 학도병으로 호흡을 맞추고, 차승원이 북한군 사단장, 김승우가 남한군 사단장 역으로 출연한다.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홍콩영화 '영웅본색'의 리메이크판인 '무적자'도 화제의 영화다.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우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영웅본색'에는 주운발·장국영, 적룡 등 홍콩스타들이 출연했다.

한국판에서는 주진모·송승현·김강우·조한선 등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한다. 주진모와 김강우가 탈북자 형제로 출연하며 송승현은 주운발이 맡았던 역을 연기한다. 감독은 '파이란', '역도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던 송해성 감독이다.

또 유오성과 유지태가 출연했었던 김상진 감독의 '주유소습격사건' 속편에는 지현우·조한선 등이 출연한다.

■ '구르를 버서난 달이' 차승원-황정민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인물로 변신

그밖에 '왕의 남자'로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이준익 감독 작품인 사극 '구르를 버서난 달이'에서는 차승원과 황정민이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인물로 변신, 연기 대결을 벌이며 강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끼'에는 연기파 배우 정재영과 박해일이 투톱으로 출연한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송강호〉



〈강동원〉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내 최초 1100만 원대 저가형 보청기 출시
국내 최초 1100만 원대 저가형 보청기 출시



국제보청기

www.international-hearing.com

전국 080-227-9940

전남 061-752-9940

부산 061-262-5200

충강 052-227-8970

제주 063-851-2422

전국 061-752-9940

전남 061-262-5200

부산 061-262-5200

충강 052-227-8970

제주 063-851-2422



한국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전남도립대학에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전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